

## 마지막 승부수 양계장에서의 HACCP제도의 실현!



박 근 식

(주)신일바오젠 고문/본회 고문

2003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미국에서의 소 해면성뇌증 발생이 매스컴을 통해 여과 없이 발표되기 시작하자 닭고기와 쇠고기의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 축산 생산 기반마저 위협을 받는 위기에 처한 바가 있었다. 이는 식품을 통해 인명에 피해나 위해를 주는 우려마저 어떠한 이유이던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강력한 반응임을 식품 생산관련자나 양계산업계는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근년에 와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금산업분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제외하고서라도 장관출혈성대장균 O157:H7이나 살모넬라 등에 의한 동물성식품 매개(媒介) 감염증이 발생하여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사이에서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일찍 1993년 식품의 국제기준담당인 FAO(국제식량기구)/WHO(세계보건기구)의 Codex 위원회에서는 세계 각국을 향하여 가축·가금생산 현장에서도 식품의 안전대책을 기본으로 한 위해분석 중점관리제도(HACCP방법)를 자국에서 입법을 권고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식품의 위생관리로서 HACCP시스템이 주목받아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적으로 적극 장려하여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일부 식품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 승인제도로 시행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식품정책방향과 축산식품의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선 도축·도계작업장을 비롯해서 축산물 가공업체에서의 HACCP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축을 다루는 농장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코 양질의 식품 원자재를 확보 할 수 없고 그 중에서도 가금류는 생산 기간이 짧고 집단사육의 형태로서 생산현장에서 적정한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늦은 감은 있으나 가금을 생산하는 과정(현장)에서

HACCP시스템 적용을 목표로 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HACCP시스템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생적이고 양호한 원재료의 사용 및 청결로 위생적인 환경 하에서 생산(作業)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그동안 필자는 미국, 구라파, 일본에 있어서 가축·가금의 생산 현장에서의 HACCP적용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중 일본의 사례를 간략하면 1996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축산농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위하여「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분야별로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여 마련한 것이 현재의 체제로서 가축·가금 생산현장에서 HACCP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위생체제 정비사업계획』을 먼저 마련하여 생산현장에서 HACCP적용을 위한 제반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생산농장의 환경 시설정비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에서 50%, 현정부에서 30%, 본인 부담 20%로서 생산시설 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전문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축·가금의 생산단계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근거 아래 빠짐없는 위해분석으로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여 이들을 확실하게 배제하는 방법인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검토 성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별명으로서 기록시스템으로 불리워진다. 이 기록을 일람(一覽)하게 되면 가축·가금의 로트(群)의 모든 생산 이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발간한 것이 “HACCP실천을 위한 가축의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해설서”(361쪽)과 “HACCP실천을 위한 계란의 위생관리가이드라인-채란농장부터 GP센타까지의 HACCP-”(202쪽) 책자를 농림수산성 생산국 축산부 위생과 수감, 동경식량안전연구소 HACCP작업 부회가 편집하여 발간하여 이 책자들이 일본양계연구소 소장 오구무라(奥村) 선생을 통해 나의 손에 입수되어 지금 이것을 토대로 하여 준비 없이 양계생산 농장에 HACCP방식 적용을 눈앞에 두고 걱정이 앞서 평생을 사회의 여러 가지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온 나로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은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기위해 책을 만들고 있다.

양계를 나의 천직으로 하여 온 양계 가축 여러분 양계관련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마지막 승부수에 성과 열을 다하여 한국의 가금 산업을 업그레이드하여 후세에 남기는 위업을 창달하자. 그렇게 하기위하여 현 가금산업 관련단체의 집행 부서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미 때늦은 감은 있으나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길이 우리들에게 부과된 마지막 책무임을 깊이 깨닫고 단결하여 추진해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오직 이길 만이 한국의 가금산업을 영구히 지키는 마지막 주여 진 기회라고 생각한다.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하여 생산단계에서 자기농장의 결백을 증명하는 『기업방위시스템』이고 자기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경영전략』으로 활용되어 국내 동업자끼리의 경쟁에서, 나아가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냉엄한 국제 경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국 가금산업 육성에 총 진군해 나가자. 이 사업을 통해서 가금의 전반적인 실무를 개선하고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과 소비를 위한 계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이 확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각 생산자 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시금대로 생각하고 명예를 걸고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총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도하는 자세로서 기원하는 바이다. **양계**